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 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문경관광공사] (건 의)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촉구	○ 올해 점촌5동 축제에서 문경관광공사가 협찬한 상품이 문경생산이 아닌 상주 생산 쌀이었던 점은, 자체 생산품을 우선하는 행정 기조에 반하는 사례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공사의 기본적인 지역경제 인식과 업무 태도에 대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함.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원칙에 대한 내부 공유와 검토 절차가 미비하였던 점을 개선하고자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전 직원 공유하고, 구매 전 공사 내부의 부서장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지역 생산품 우선 구매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음.
[문경관광공사] (촉 구) 조직운영 개선 및 자율경영 의식 강화 촉구	○ 공사 전환 이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증가한 상황은 조직 운영의 비효율을 드러내며, 내부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는 점은 시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조직 화합이 필요함. 또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된 만큼 구성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수동적 행동 태도에서 벗어나 자체 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	○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력 현황 및 업무 적정성 분석을 실시하여, 미운영 사업장 인력의 재배치 방안 마련하고, ○ 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체계 구축 및 유휴 인력 최소화를 위한 인력 재구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음. ○ 사내 갈등 원인에 대한 내부 진단 및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음.

건 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 또한,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과 신뢰 회복을 유도하여 내부 갈등 해소 및 조직 화합 강화에 노력하겠음. ○ 자율적·창의적 경영 마인드 강화를 위해 직원 대상 경영역량 및 혁신마인드 함양 교육을 정례화하고, 사업 제안 공모제를 운영하여 직원 참여를 유도하겠음. ○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내부 TF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여 수동적 행정 태도에서 벗어난 능동적 사업 발굴 체계를 정착시키겠음.
[문경관광공사] (건 의) 수지율 개선을 통한 독립채산제 기반 경영 강화 촉구	○ 2024년도 수지율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액을 제외하면 실제 수지율은 71%에 불과해, 인력 증가에 상응하는 경영성고가 부족한 상황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공사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수지율 지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익 창출을 위한 실질적 개선 노력을 촉구함.	○ 인력 증가에 따른 성과 제고를 위해 부서별 업무량 대비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재배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며, 팀별 목표 수립과 실적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운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건 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 또한, 전 사업장의 운영수지를 면밀히 손익 분석하여, 수익성이 낮거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방식 개선, 기존 사업의 다각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사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문경관광공사] (축 구) 단산모노레일 조속한 안전검사 완료 및 운행재개 촉구	○ 2023년 운행 중단 전까지 단산모노레일은 특산물 다음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관광 효자 상품이었으나, 운행 중단으로 문경 관광산업에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를 초래함. 이에 따라 운영 주체인 문경관광공사는 조속히 휴지를 해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를 통해 운행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며, 단산의 관광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한 운행 재개를 강력히 촉구함.	○ 문경시에서 2025년 4월부터 단산모노레일 주변 지반조사 및 보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용역 완료 후 차량 및 관제통신 연결 등 운영에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재운영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겠음.

건 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문경관광공사] (건 의) 관광공사 홈페이지 정보 최신화 촉구	○ 운영이 중단된 단산 카라반 캠핑장을 비롯한 관광시설의 운영 변경사항이 문경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아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업데이트되어 신뢰도 높은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주기 바람.	○ 현재 운영 중인 관광시설 및 휴장·운영 중단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내 안내 내용과 실제 운영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즉시 수정 조치하도록 하겠음. 특히, 단산 캠핑장과 같이 혼선을 줄 수 있는 휴장 시설에 대해선 명확한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 향후 관광시설의 운영 변경(개장, 휴장 등)시, 관련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음. 또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방문자 민원 및 문의 내용을 수집·분석하여 홈페이지 정보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문경관광공사] (시 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정 및 재발 방지 촉구	○ 문경관광공사 내 정규직·공무직·기간제 등 다양한 채용 형태의 직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제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기업으로서 중대한 법규 위반이므로	○ 우리 공사는 2007년 설립한 이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전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며, 일반직(기능직 포함)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장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성립 및 유지해 오고 있었음.

건 명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즉시 시정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히 이행하기 바람.	○ 그 이유는 일반직 직원들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호봉표)을 준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이며, 당시에는 이러한 운영방식이 공무원 기준에 맞춰져 있어 공무원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듯이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매년 고용노동청 감독에 대한 별다른 지적이 없어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 2025년 1월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채용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음.